

# 돈은 어떻게 벌까요?

벤 허버드 글, 베아트리스 카스트로 그림

돈을 버는 방법 - 홈 아르바이트

202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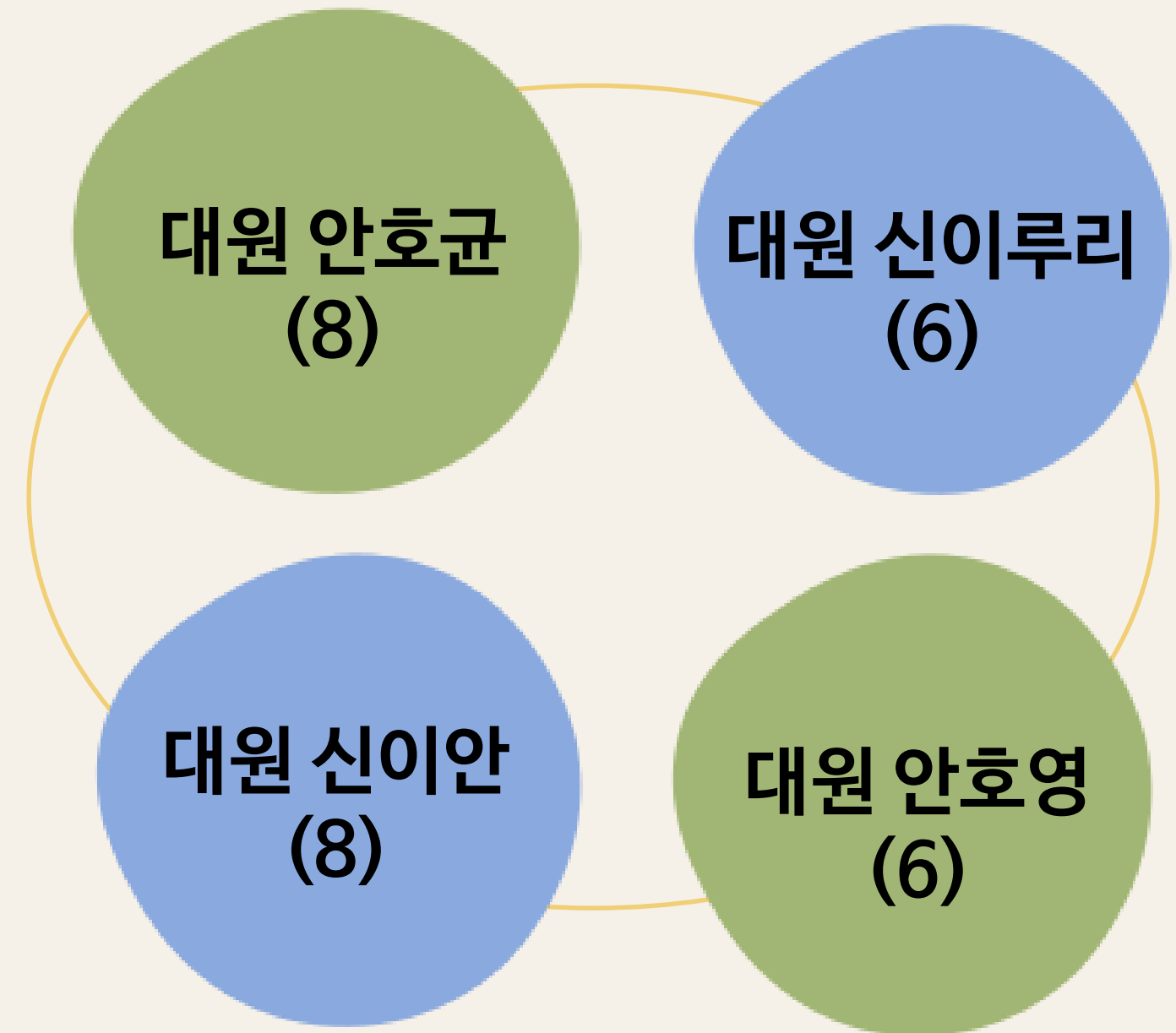
## 씨앗경제모험단 소개



### 씨앗경제모험단은

• 친근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책을 통해서 '돈' 가치, '선택', '나눔' 등을 배우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일 될 탐험을 시작합니다.





## 오늘의 탐험 목표

### ❁ 오늘의 책 소개

돈은 어떻게 벌까요?

### ❁ 어떤 이야기일까?

책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해보기

### ❁ 내가 궁금한 점은~?

가볍게 책을 훑어보며 궁금한 점을 찾아보기

### ❁ 아하~ 그렇구나!

나의 궁금증을 찾아보기

### ❁ 나도 할 수 있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활동지 작성해보기

### 탐험 키워드

노동 :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직업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아르바이트 :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돈을 벌기 위하여 학업이나 본업 이외에  
하는 일

급여 : 일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돈



## 탐험내용

### 책 살펴보기

어린이가 차를 닦을 수 있나요?  
차를 닦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을 번다는 건 힘든 일 같아요.  
돈은 그냥 주면 안되나요?



우리 씨앗경제모험단의 대원들에게는 세차를 하고 있는 마야의 모습이 인상적 이었습니다. 마야가 왜 세차를 하는지, 세차를 하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책 내용을 탐구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직 '돈'의 개념이 어려운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실제 화폐를 보여주며 돈이란 무엇이고, 화폐는 무엇인지, 용돈, 노동과 대가 등 관련 개념들을 쉽게 탐구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탐험내용

### 나는 이렇게 궁금해

어린이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세차는 힘들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어요.

돈은 어떻게 만들까요?

돈은 안벌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남겨두면 계속 많아질까요?

본격적인 책 읽기에 앞서서 가볍게 책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마다 궁금한 점을 나눠보았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은 일을 해서 벌어야 한다는 것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동생 대원들은 하원 길에 사먹던 젤리는 편의점 사장님이 주는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은 돈(월급)으로 사는 것임을 이제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편의점 사장님의 직업, 엄마 아빠의 직업과 일의 대가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탐험내용

### 책 속에서 답 찾기, 이야기 속으로

돈을 버는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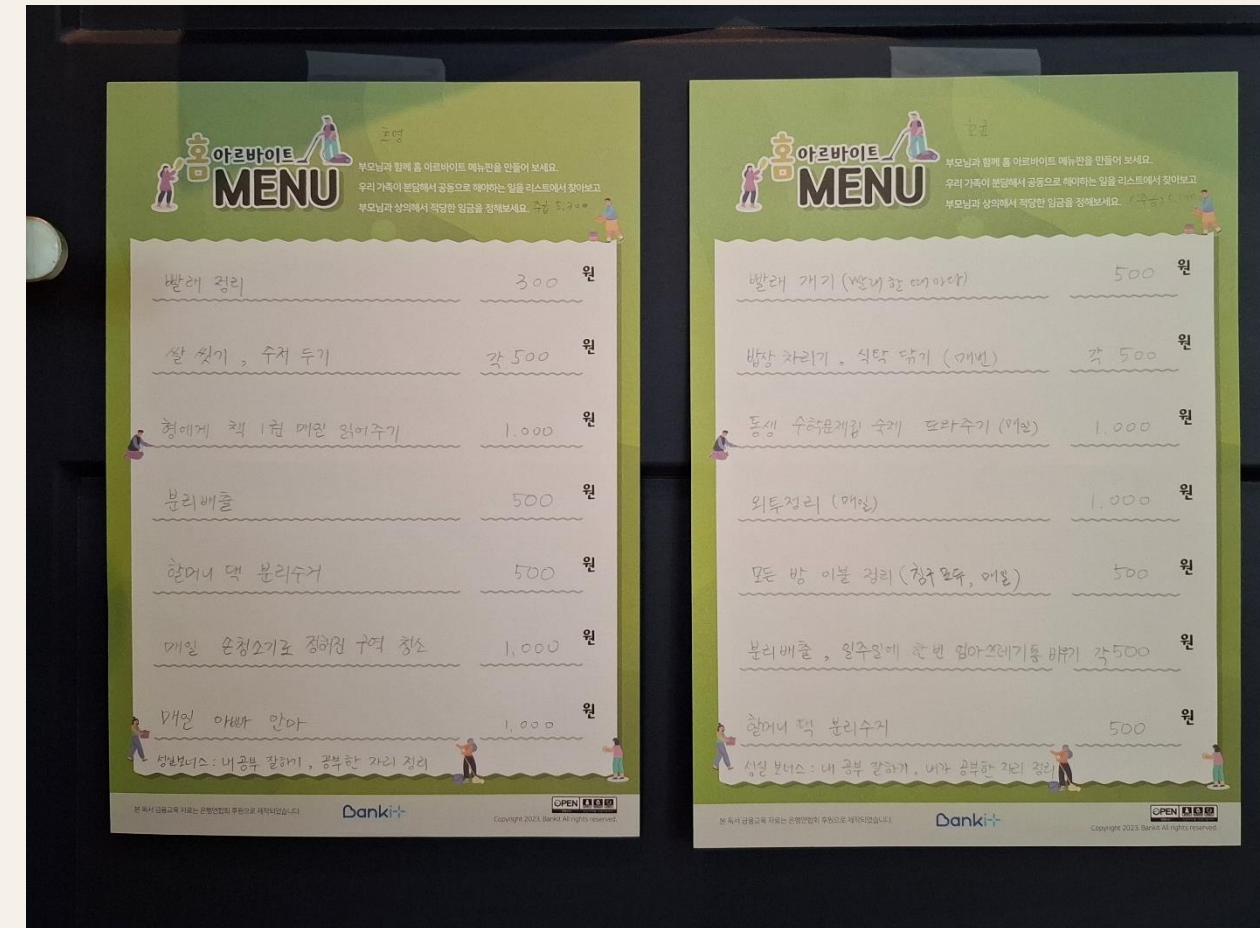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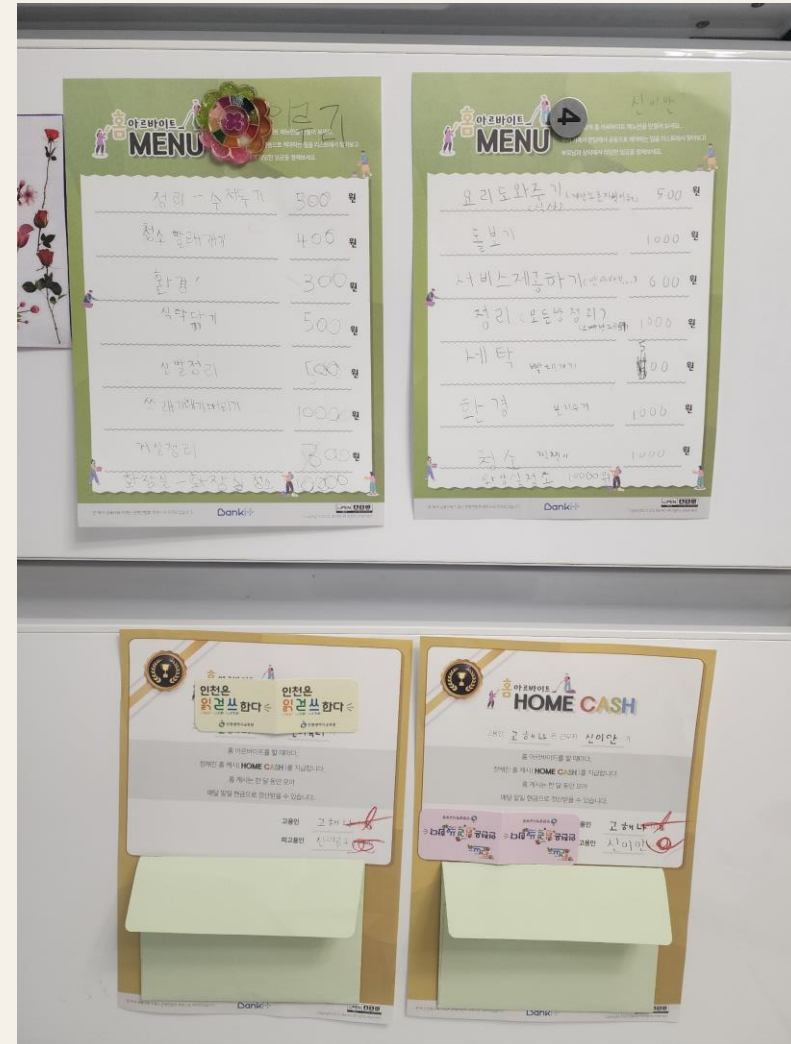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고, 그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답니다.

평소에 '매일 책 읽기'를 하면서 용돈을 받은 경험이 있던 형제 대원들은 용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친지분들께 받은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재미있는 얘기를 주고 받았습시다. 이 부분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할 일'과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고, 내가 필요한 돈을 버는 이유와 방법을 다시 한 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아빠, 엄마가 왜 회사에 가는지 막연히 이해했던 것을 책을 읽어나가며 알 수 있었는데요, 일을 하는 이유, 여러가지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히 마야가 힘들지만 끝까지 일을 해낸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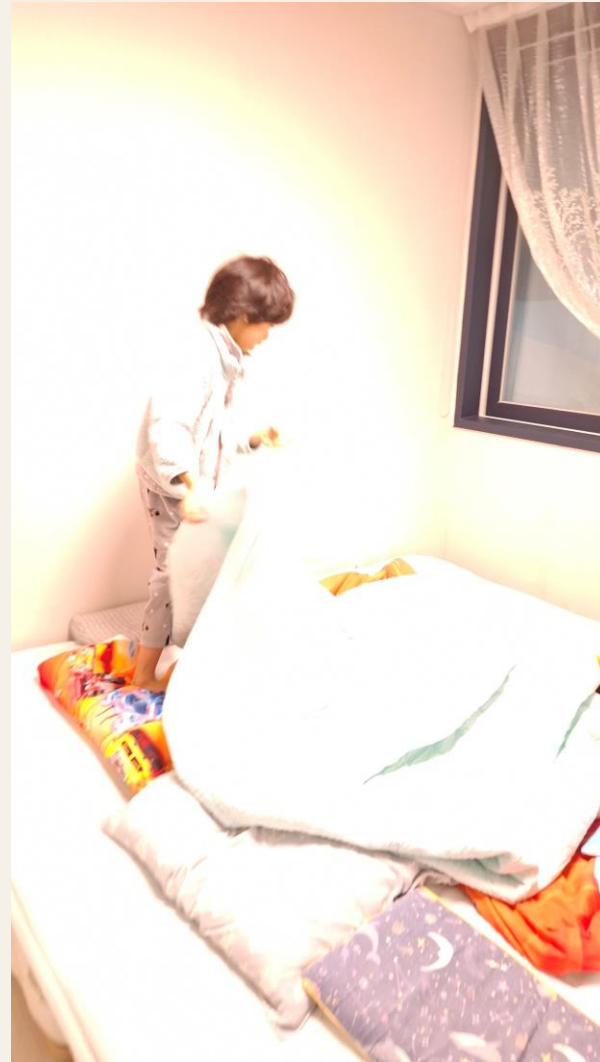
# 홈 아르바이트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는 질문에 밥 잘 먹기, 손 씻기와 같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오른 대원들입니다. 하지만 쌀 씻기, 현관 정리, 빨래 개기, 거실 청소, 우리집과 할머니댁 분리수거 등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을 나의 첫 아르바이트 일로 정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빠, 엄마와 계약서도 적어봤는데요, 서로 간의 약속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 홈 아르바이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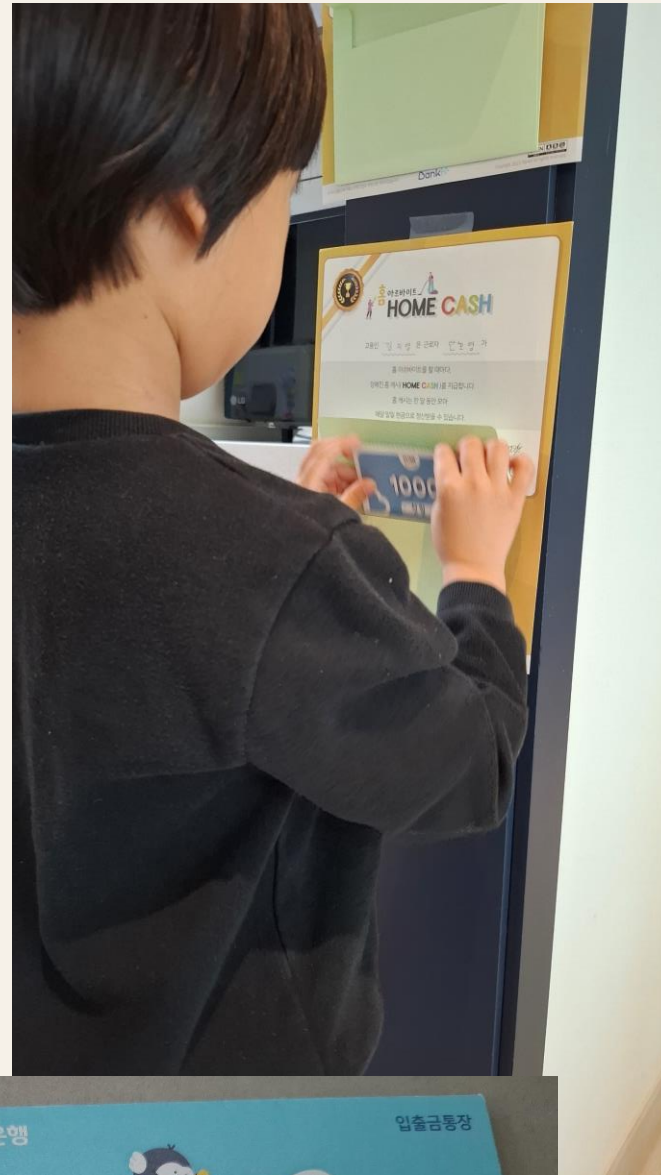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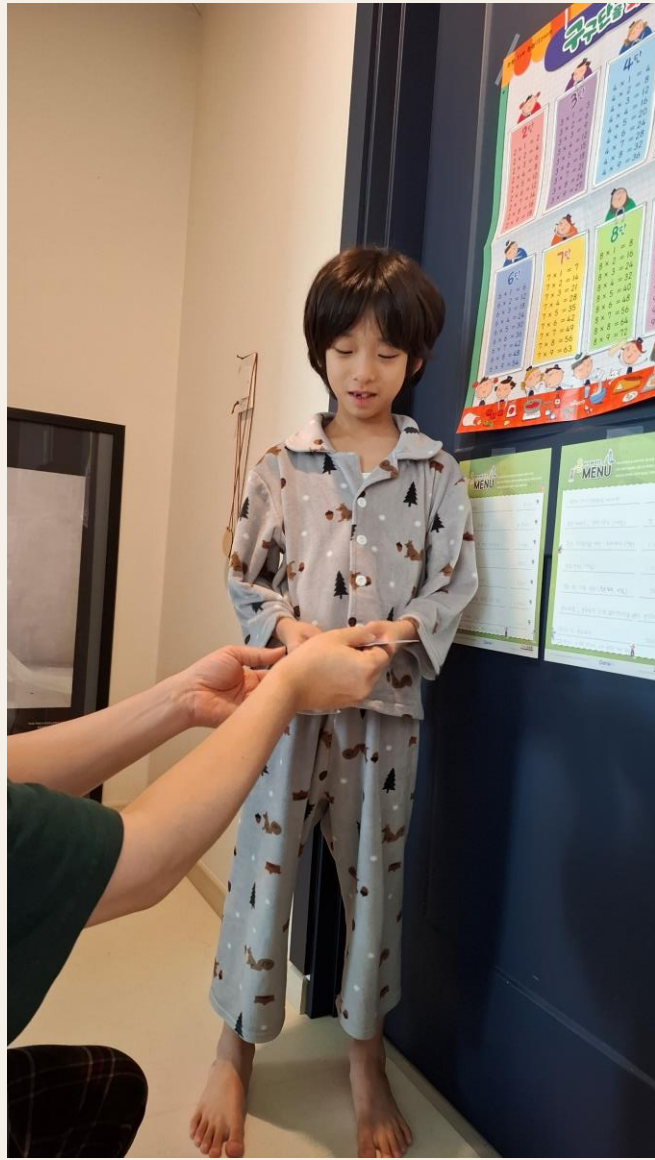


각자의 집에서 맡은 일을 해보았습니다. 방학이지만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침구를 정리하고, 매 끼니 식사 준비를 돕고, 조심조심 쌀을 씻는 것과 거실을 쓸고 먼지를 모으는 것은 꽤나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형님대원들은 “엄마가 이 일들을 매일 했다구요?”라며 새삼 엄마의 노고를 이해해 보기도 했습니다.

가끔 동생대원들은 하기 싫다며 맡은 일을 게을리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 홈 아르바이트 모습



대원들은 매 주 일요일에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주급으로 정산을 받는데, 안 한 일에 대해서는 제하고 정산을 하니 왜 조금 주냐는 반응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맡은 일과 힘들 때에도 끝까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성실하게 할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4주차에 실제 돈으로 정산 받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입금해 보는 것도 해보았어요. 내 지갑에 있었던 돈이 없어지는 줄 알고 놀라기도 했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경험하고,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탐험을 마치며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직업’과 ‘돈을 버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유치원 친구 답게 “스포츠카가 100대가 있는 사람” 이라거나, “예쁜 공주님”을 떠올렸던 친구들은 좀 더 현실적인 직업이나 아빠, 엄마의 직업과 비슷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님대원들은 지난 시간에 탐구했었던 ‘기부’ 까지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나는 경찰관이 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할 거고, 내가 번 돈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남을 돕는 데 쓸꺼야”, “나는 화가가 되서 멋진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고, 내가 번 돈으로 그림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꺼야.” 라고 기특하고 멋진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책의 내용을 다시 짚어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씨앗경제모험단 대원들은 앞으로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면서 스스로 필요한 돈을 벌어보는 소중한 경험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 탐험을 마치며

###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공부 포인트 기부하기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 푸드뱅크에 기부하기

깨끗하면서 더 이상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 필요한 친구에게  
주기

너무 많은 머리핀, 연필 필요한 친구에게 보내기

아빠, 엄마가 이용하는 은행 어플에서 포인트 모아서 기부해보기

뱅크잇 에서 클로버 모아서 기부에 참여해보기

### 첫 탐험을 마치며 느낀 점

씨앗경제모험단의 대원들 모두 첫 탐험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를 살펴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될꺼야”라고  
다짐하며 첫 모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탐험을 마치며

